일상 속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을 가져옵니다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1. 2025년 생명나눔, 이렇게 달립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1월 8일 신년 간담회
2025년 주요 사업 계획 발표 · 목표 설정
올 한해 정기 후원자 2025명 모집 추진
해외 지원 사업 활성화 · 문화교류로 연대
스포츠 캠페인으로 나눔문화 확산 기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1994년에 설립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이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대부터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목표로 장기 및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사업,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사업, 불우이웃돕기 사업 등을 전개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 진력해 왔다. 올해 창립 31주년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종교계 대표 공익법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에 나선다. ‘정기 후원자 모집’ ‘스포츠 캠페인’ ‘해외 지원 사업 활성화’ 등 생명나눔실천본부의 2025년 올한 해 사업과 목표를 꼼꼼히 살펴본다.

생명나눔 정기 후원자 모집 캠페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4년 설립 이후 31년 동안 의료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며 나눔과 자비의 가치를 실천해왔다. 국민건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불우이웃돕기, 긴급 의료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불교계의 나눔과 자비 정신을 기반으로 더욱 넓은 사랑과 온정을 실천하고자 ‘생명나눔 2025 후원 캠페인’을 통해 연말까지 2025명의 정기 후원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긴급 의료비 지원, 주거와 생계 지원, 정서적 위로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후원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생명나눔의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독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면 스님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한 사람의 도움은 작은 변화지만 모두가 함께하면 큰 기적을 만들수 있다”면서 “‘생명나눔 2025 후원 캠페인’은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나눔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삶의 큰 희망으로 다가감과 동시에, 나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지원 사업 활성화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21년 ‘글로벌 생명나눔’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의약품 접근이 어려운 국가를 대상으로 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4년에는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의약품과 물품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2025년에는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대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 단체인 마하무용단과 협력해 진행할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무용 교육과 공연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전파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의 문화 교류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심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대상국가는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예정)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의약품 및 물품을 지원하고 마하무용단이 한국 전통무용 교육과 청소년 문화교류를 담당한다.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를 상대로 물품을 전달, 해외 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일면 스님은 “지난해 4월 캄보디아에 20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지원하고 7월 말 직접 현장에 방문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부처님 법을 따르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주요 일정

4월 26일	연등회
4월 27일	전통문화마당
5월 19일	자선골프대회
6월 6일	천도재
6월 16일	해외지원사업
9월 13일	걷기명상
10월 18일	산사음악회
11월 22일	자선음악회
12월 2일	불우이웃돕기

※ 상기 일정은 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생명나눔 스포츠 캠페인 방안 모색

이와 함께 2025년 스포츠를 매개로 생명나눔 활동을 한층 확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생명나눔 스포츠 캠페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골프, 파크골프, 야구, 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생명나눔의 중요성을 알리고, 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나눔 문화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장기기증 및 나눔 활동을 홍보하는 한편,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기부 및 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비 전액은 기부금으로 사용된다.

일면 스님은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나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일면 스님은 1월 8일 서울 본부에서 진행된 2025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는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님은 “푸른 뱀은 주변을 잘 살피고 허물을 벗고 성장하는 모습에서 지혜와 번영을 상징한다”면서 “60년 만에 돌아온 푸른 뱀의 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나눔이 지혜로운 변화로 성장할 수 있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하겠다”면서 “늘 최선을 다하며 불교계에서 부처님 자비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4년 생명나눔실천본부 성과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24년 전국 사찰 및 대학교, 시민 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3330명,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자 2399명을 모집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장기기증희망등록 모집 목표 100%를 달성했으며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또한 109%를 초과 달성했다. 현재까지 누계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8만3000여명,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5만7000여명에 달한다.

꾸준한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자 모집으로, 2024년 한 해에만 52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은 큰 성과다. 이는 12개 간호대학과 함께한 ‘약속 프로젝트’를 통해 조혈모세포의 의미와 필요성을 널리 알린 덕분이다. 캠페인과 사후관리 활동을 연계해 기증자와 환자 간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조혈모세포 기증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본부에서 매달 600여 부 이상 발행하는 월간 소식지 〈행복한 빈손〉 등을 통해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전하고 치료비를 모금, 2024년 한 해에만 40명의 환자에게 8000여 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지금가지 생명나눔에서는 1180명에게 43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이밖에도 틀니 무료지원 제도, 청소년 자살예방 연극 등을 실시하며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끊이없이 노력하고 있다.

한국 비구니승가의 존재와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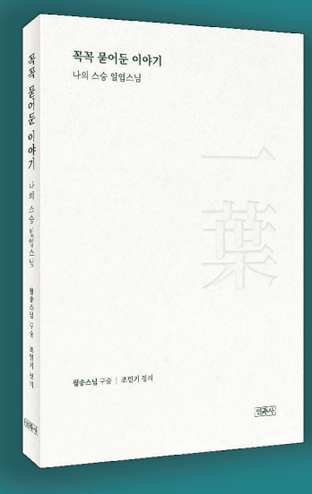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1700년의 역사 속에 묻혀 있던 비구니스님들의 존재와 역할을
한 권의 책으로 조명한 책!

40여 종이 넘는 고문헌과 140여 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한국 비구니사를 철저하게 밝히고 있는 책!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비구니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책!

저.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 집필. 전영숙 | 450쪽 | 35,000원

꼭꼭 묻어둔 이야기,
나의 스승 일엽스님



당대 스캔들 메이커 ‘김일엽’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선사禪師 ‘일엽’으로!

구술. 월송스님 | 글. 조민기 | 263쪽 | 18,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